기상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9. 10.(목) 16:30 배포 2026. 9. 10.(목) 16:30

기상항공기, 국가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 참여

- 기상항공기 투입으로 방사능 확산 탐지 속도 빨라져
-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2년간의 공동연구 성과, **국가훈련 현장에 첫 적용**

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(원장 강현석)은 원자력안전위원회(위원장 최원호)가 9월 10일(목)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의 **신월성2호기 원자력발전소를 대상**으로 실시한 **'2026년 국가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*'에 기상항공기를 투입해 공중방사선 탐사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.**

* 원자력안전위원회(주관), 기상청, 행정안전부, 경상북도, 울산광역시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한국원자력의학원, 한국수력원자력(주), 한국원자력환경공단, 지역 관계기관(군·경·소방) 등

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**방사능 누출 재난에 산불이 겹치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목적**으로 **방사능 방재 체계 전반을 점검**하였다.

기상항공기는 방사능 물질의 공간적 확산 범위를 신속·정확하게 탐지하여 **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** 한다. 이번 훈련에서는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일대의 넓은 지역을 1~2 km 고도 상공에서 비행하며 공중방사선을 빠르게 탐사하였다. 이렇게 **관측된 공중방사선 농도 수준과 공간적 범위 정보는 비상 발령, 주민 대피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초기대응 기준자료로 활용**된다.

또한, **국립기상과학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**(원장 임승철)은 2025년부터 방사능 사고 발생에 따른 **누출 방사선을 정밀하게 탐지**하기 위해 자연에서 발생하거나 **일상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보정하는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·개발**해 왔으며, 그 동안의 **연구·기술개발 성과를 이번 훈련에 적용**하였다.

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은 “**최근 다양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복합재난에 대한**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**서로 다른 분야의 협력이 필수**적이다. 국립기상과학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공동연구를 비롯해 **기상항공기를 활용한 국가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 참여**는 **국가 차원의 재난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성공적 사례**이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국립기상과학원은 매년 국가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에 참가하여 **국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**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붙임. 기상항공기의 국가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 참여 관련 사진

담당 부서	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	책임자	부 장	이철규 (064-780-6590)
		담당자	연구관	구태영 (064-780-659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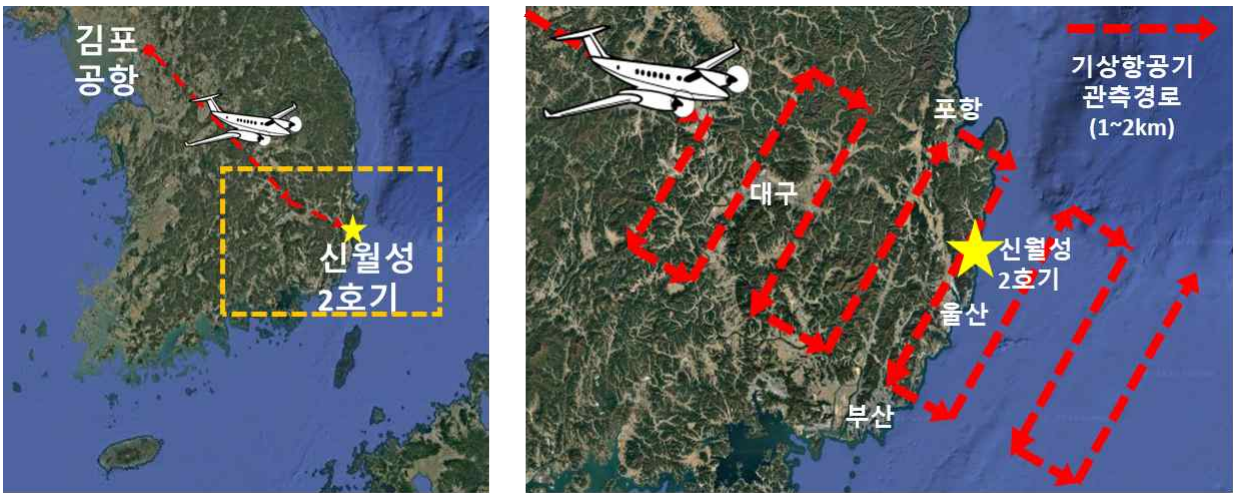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기상항공기의 국가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 참여 관련 사진**

(1) 공항에 대기 중인 기상항공기

(2) 기상항공기에 탑재된 공중방사선(감마선량률) 탐지 장비(RSX-3)



(3) 기상항공기의 신월성2호기 부근 관측 경로